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완도 김강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종민



진도 조상웅



함평 김광춘



회선 박순철

## 광양시, 학교무상급식 90%이상 만족

광양시가 올해 19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는 학교무상급식에 대해 학생, 학부모 등 대상자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지역의 초·중·고 50개 학교 학생 500명, 학부모 200명, 영양사 100명 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전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급식 식단구성 만족도와 학교급식 매실청 지원사업 관련한 17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학생·학부모·영양사 등 800명 대상

학교급식·매실청 지원 만족도 평가

설문조사 결과 무상급식 인지도에 대해서는 학생 76%와 학부모 97%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학생이 93%, 학부모 96%로 나타나 높은 평가를 얻었다.

또 식단구성의 만족도, 식재료 품질, 맛, 영양, 건강 도우며부 등의 항목에서도 대부분 80% 이상이 만족한

다고 답변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 무상지원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율러 2014년부터 시비로 전액 공급하고 있는 광양매실청 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92% 이상이 만족도를 보였다.

이 밖에도 소화가 잘된다, 갈증해

소,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답변과 함께 양과 횡수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복자 학교급식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 관련기관과 공급업체 등에 통보하고 학교급식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도 19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더 질 좋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 순천시 농촌교육농장 4개소 품질인증

참한솔교육농장·잠실주말농원·배꽃피는마을·덕동원

순천시는 최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관내 농촌교육농장 4개소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급원에 품질인증을 획득한 농촌교육농장은 참한솔교육농장(주안, 조영식 대표), 잠실주말농원(낙안, 장영규 대표), 배꽃피는마을(낙안, 박정숙 대표), 덕동원(송광, 안기욱 대표) 4개소이며, 순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또한, 2015년에 품질인증을 획득한 지역사립복지학교(승주, 조병철 대표)를 포함해 총 5개소가 품질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에는 농촌자원, 교육운영자 역량,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 교육서비스 등 5대 품질요소를 심사해 우수한 농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을 선발하여 교육계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증제이다.

급원도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농촌진흥청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쳤으며, 품질인증 농장은 3년마다 재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만큼 품질유지에 힘써야 한다.

특히,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에는 응급처치교육 이수,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의무화해 안전관리 요소를 강화했으며, 이번에 품질인증을 획득한 교육농장은 정부가 인정한 안전한 농촌교육농장이다.

순천시농업기술센터 김원태 소장은 "순천만의 특색 있는 농촌자원을 바탕으로 교육계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농촌교육농장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농촌교육농장이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장주 역량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 화순군, 작두콩 꼬투리 식품원료 등재 '결실'

식약처, 제한적 사용 고시

그 동안 식품 원료로서 유통이 제한된 작두콩 꼬투리가 화순군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식품원료로 등재돼 화순군 작두콩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작두콩 꼬투리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식품원료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작두콩은 2010년 특새 소득 작목으로 화순군에 첫 도입된 뒤 12월 현재 30ha에서 재배되는 대표작목이다.

특히 꼬투리의 구수한 맛과 우수한 기능성 성분으로 소비층이 두터워 차의 원료로 가공 유통되고 있으며, 지역 작두콩의 90% 이상은 꼬투리 상태로 수확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31일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면서 꼬투리가 식품원료로 사용이 어려워지고 유통이 제한되면서 작두콩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현실화됐다.

이에 화순군은 작두콩 꼬투리 식품원료 등재를 위해 과거의 식용근거 자료를 수집해 지난 3월 농촌진흥청 정책제안 사업으로 '작두콩 꼬

투리 식품원료 등재'를 신청했다.

이후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지역 농가와의 긴밀한 협조로 작두콩 품종구명, 꼬투리 수확기 판단기준 등을 제안, 지난 6월 식약처 정책제안심의 통과에 이어 12월 식품원료 고시라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꼬투리가 식품원료로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으나 화순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차 가공용으로 이용하는 미숙꼬투리에 대해 '식품원료 제한적사용'이라는 최종 협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작두콩을 재배하는 준양면의 한

농가는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작두콩 재배를 포기할까 고민도 많이 했다. 실제로 주변에서 작두콩 재배를 포기한 농가가 많다. 군에서 현지의 어려움을 적극 나서서 해결해줘 작두콩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구중곤 군수는 "작두콩 꼬투리 유통이 어려워 재배, 가공 유통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어려움이 이루어 말할 수 없이 컸는데 이번 식품원료 인정으로 작두콩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군 작두콩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광양시,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



광양시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임시로 개소했다.

시는 지난 20일 광양시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식을 갖고 체계적인 치매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경식 보건소장을 비롯해 보건소 산하 과장과 치매예방동아리인 동행 신행숙 회장, 치매예방지도사, 시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임시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에 개소한 치매안심센터에는 5명의 전문 인력이 치매조기검진과

환자상담 및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체계적인 치매통합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치매안심센터 개소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를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해결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규 건물을 매입과 리모델링을 거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식 보건소장은 "현재 치매업무가 치매안심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치매가족들의 부담의 부담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이 확대되어 '치매안심 건강도시 광양'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 나주시, 시민중심 체감행정 성과 보고회

총 54건 부서별 성과 공유

나주시가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 시민중심 체감행정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나주시를 대표하는 행정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나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시민중심 체감행정'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별 체감시책을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보고회는 올 한 해 각 실·단·과·소별로 추진한 총 54건의 체감행정 시책에 대한 성과보고를 비롯해 이에 대한 평가와 직원 간 공유 시간을 가졌다.

나주시는 지난 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고등학교 취약시간 대 안심귀가 서비스', '나주랑 콜센터 운영' 등 10대 체감 행정을 발굴·추진, 시민들에게 큰 호응

을 이끌어 냈다. 올해 역시 총 54건의 체감행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며, 안전, 복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올해 10개 대표 시책으로 지역의 분야별 수요,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분석한 통계자료인 '우리동네 통계', 안전제일도시를 위한 '방범용 CCTV설치'(166개 증설), 공중화장실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성 안심벨 설치'(47개), 찾아가는 영화관, 시립예술단 공연 등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문화행복 배달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를 통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행복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옐로카펫 설치 등으로 나주시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0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 순천시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최우수상'

청년 창업·각종 근로환경개선사업 등 성공적 추진

순천시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개최한 '2017년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일자리 인프라 개선 부문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정책기조를 반영해 신규 추진한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 실적을 심사 받은 결과 이뤄진 결실이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전영재 순천부시장은 "순천시는 내년도에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시

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청춘창업, 청춘웃장 등을 통해 청년 창업·창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 운행 및 근로자 기숙사 지원 등 각종 근로 환경 개선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기존 일자리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거둬으로써 그 공을 인정받아 올 한 해 동안 중앙 및 도 단위 일자리 부문에서 다섯 차례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순천=김종영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